

김승연 회장, 5년여 만에 현장경영... 3형제 승계 '드라이브'

〈한화그룹〉

경기 판교 한화로보틱스 본사 방문
로봇 기술현황 점검·임직원 격려
복귀시점, 사업재편 시점과 맞물려

“3세 경영체제, 사업영역 분리
‘논란 불씨’ 차단 의지 담은 듯”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5년여 만에 현장경영에 복귀했다. 단순한 경영 재개가 아닌 핵심 계열사 현장에 잇달아 방문하는 등 미래 구상을 본격화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 회장이 최근 불거진 건강 이상설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3세 경영을 마무리 짓기 위한 것이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1981년 김종희 한화그룹 창업주가 아무런 유언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별세하면서 김 회장과 동생 김호연 빙그레 회장은 형제간 상속 분쟁을 겪기도 했다. 그 결과 한화와 빙그레는 분리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5일 경기 판교 한화로보틱스 본사를 방문해 로봇 기술 현황을 점검하고 임직원을 격려했다. 앞서 지난 3월 29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R&D 캠퍼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달 29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R&D 캠퍼스 직원들과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한화그룹

를 방문한지 일주일만이다. 김 회장이 현장 경영 활동에 나선 것은 2018년 1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베트남 공장 준공식 이후 5년 4개월 만이다.

재계에선 김 회장의 현장 경영 복귀 시점이 그룹 사업 재편이 시작된점과 맞물린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승계의 마지막 퍼즐로 세 형제의 개인회사인 한화에너지와 지주사인 ㈜한화의 합병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당초 김 회장은 세 아들이 맡은 사업 부문을 명확히 나눴다. 장남 김동관 부회장은 방산과 태양광, 항공우주, 석유 화학 등 한화그룹의 주력 사업에 집중

하고 있다.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은 금융을 맡아 안정적인 성과를 유지하고 있다. 막내 김동선 부사장은 유통과 호텔업을 맡아 사업 확장에 집중하고 있으며 최근 사업부문 재편을 통해 신설되는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까지 담당하게 된다.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는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떨어져 나온 사이버 보안 업체 한화비전과 반도체 장비 업체 한화정밀기계를 흡수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는 한화시스템, 한화오션만 남는다.

이처럼 김 회장이 사업재편으로 3세 경영에 힘을 실으면서 삼 형제의 그룹

지배력 높이기엔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그 중심에는 한화에너지가 있다. 김 부회장 등 3세 경영인들의 회사인 한화에너지는 한화 지분을 꾸준히 늘렸다. 2007년 김 회장이 아들들에게 지분을 증여할 당시 한화에너지는 한화의 보통주 165만주 2.2%를 취득했다. 이후 2019년과 2020년 한화에너지는 한화의 지분을 추가 취득하면서 지분율 4.42%까지 확대했다. 이후 2021년 한화에너지는 에이치솔루션 역합병 이후 한화의 지분을 추가 취득해 현재 지분율인 9.70%로 끌어올리며 2대 주주에 등극했다. 한화에너지는 김 부회장이 지분

50%, 김 사장과 김 부사장인 각각 25%씩 보유하고 있다. 한화에너지와 한화가 합병할 경우 3형제의 한화 지분율은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구조다.

재계 관계자는 “김 회장이 현장에 복귀한 건 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3세 경영 체제로 접어들면서 형제간 사업 영역을 명확하게 분리해 논란의 불씨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반면 3형제의 한화 지분율이 19%에 이르는 상황에서 무리한 합병 보다는 증여나 시장에서의 추가 지분 매입 등의 방법으로 승계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이번 사업구조 재편은 한화그룹이 방산과 인더스트리얼솔루션 사업의 분리를 통해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가전 점유율 1위에 9조 반도체 지원금 까지

삼성전자, AI스마트폰 판매 ‘美서 날개’

美 생활가전 시장 매출 점유율 21%
스마트폰 점유율 36%로 16%p ↑
애플은 64%서 48%로 16%p 줄어

미국 정부 반도체 보조금 9조 규모
대미 투자액 440억 달러로 늘릴 듯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걸린 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스1

과 서비스를 선보이며 미국 가전 시장의 점유율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전 외에 스마트폰 판매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지난 2월 미국 시장 점유율은 36%로 전월보다 16%포인트(p)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애플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64%에서 48%로 16%p 줄었다. 애플 뒷발인 미국에서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판매호조도 눈에 띈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말 AI가 탑재된 갤럭시 S24를 세계에서 처음 출시했는데, 지난 2월 판매량 1위에 올랐다. 이 기간 스마트폰 판매량은 1969만대로 전월보다 13% 증가해 애플(18%)을 따돌렸다.

◆美정부 9조 지원에 삼성도 투자 확대 고려

삼성전자는 미국 가전 시장 뿐만 아니라 반도체 시장까지 확대할 전망이다. 삼성전자가 미국정부로부터 반도체 보조금을 최대 70억 달러, 약 9조 원가량 받을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지난 8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 정부가 다음 주쯤 반도체지원법

(칩스법)에 따라 삼성전자에 최대 66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미국 인텔과 대만 TSMC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로, 예상됐던 50억 달러보다 30% 이상 늘어난 액수이다.

다만 이는 삼성전자에게 다소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 거액의 투자 지원을 받은 만큼, 미국 투자 규모를 확대해야 할 수도 있어서다. 실제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TSMC는 기존 4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늘리고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을 하나 더 추가하기로 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TSMC에 보조금 66억 달러를 지급한다고 발표했으며 지난달 미국 인텔은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85억 달러를 지원받았다.

이에 삼성전자의 미국 투자 규모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서 2021년 170억 달러를 투자해 건설 중인 파운드리 생산공장에 더해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한 예정으로, 총 대미 투자 금액은 44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통해 “삼성전자가 새 반도체 공장과 패키징 시설, 연구개발(R&D) 센터 등을 포함해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서 추가 투자를 할 예정”이라며 “또 440억 달러 이상으로 투자액을 늘릴 것이며,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 대한 투자도 밝힐 것”이라고 보도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정치 1번지’ 종로구 민주 광상언 당선

≫ 1번 ‘민주 175석, 국민의힘’서 계속

역시 한강벨트 중·성동갑에선 전현희 민주당 후보가 52.61%, 윤희숙 국민의힘 후보(47.38%)를 제쳤고, 광진을에선 고민정 민주당 후보가 51.47%를 얻어 오신환 국민의힘 후보(47.6%)에 앞서면서 재선에 성공했다.

‘정치1번지’ 서울 종로에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광상언 후보가 50.92%를 얻어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44.13%)와 금태섭 개혁신당 후보(3.22%)를 이기고 당선을 확정했다.

경기권 보수 텃밭으로 꼽히는 경기 성남분당갑에서는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53.27% 지지율을 얻어 이광재 민주당 후보(46.72%)를 누르고 당선됐다. 옆 지역구인 성남분당을에서는 대통합실 홍보수석 출신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51.13%로 김병욱 민주당 후보(48.86%)에게 접전 끝에 승리했다.



광상언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후보가 11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서 열린 선거사무소에서 당선 소식을 축하하고 있다. /뉴스1

개혁신당 대표인 이준석 후보는 수도권 ‘반도체 벨트’ 중 한 곳인 경기 화성에서 42.41% 득표율로 공영운 민주당 후보(39.73%)를 따돌리고 당선을 확정했다.

‘명품대전’을 벌인 인천 계양에서 민주당 대표 이재명 후보가 54.12%를 얻어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45.45%)를 제쳤다.

/서예진 기자 syj@

“밸류업 프로그램 구체적 정책 눈여겨 봐야”

≫ 1번 ‘금투세 폐지 제동’서 계속

제10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을 비롯해 ▲M&A·물적분할 시 소액주주 차별 시장 ▲공적기금 운용 시 주주환원정책에 대한 높은 가중치 부여 등이 포함돼 있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밸류업 프

그램과 큰 궤를 함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로 인해 밸류업의 중장기 방향성은 유지될 거라는 기대도 자본시장 내에 있는 상황이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제껏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딱히 나온 정책이 없다”며 “총선 이후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다고 했으니 이를 눈여겨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지배구조 개선 같은 정책이 나오면 야권에서 브레이크를 걸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허정원 기자 zelkova@